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 단체보험시장 부진 속 외자계 약진 두드러져

- 작년 상하이 지역 보험시장이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단체보험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가입률 저조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최근 공개된 상하이보험업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, 작년 상하이 지역의 총수입 보험료 규모는 10% 이상 증가 한데 비해, 단체보험은 96.8억 위안을 거수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.12% 증가에 그침.
  -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불안이 지속되자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단체보험 가입을 미룬 결과로 분석됨.
  
- 단체보험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크게 높인 외자계 인보험(생명보험)회사들의 약진이 주목되고 있음.
  - 현재 상하이 지역에서 단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인보험회사는 모두 33개사(중국계 19개, 외자계 14개)로, 이 중 외자계 보험회사의 단체보험 시장점유율은 2006년 3%에서 작년에는 6%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.
  - 또한 작년 상하이 지역 단체보험시장에서 단기 단체보험(여행자 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체보험) 비중이 약 3%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기 및 내수 경제의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는 단체보험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  -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단체보험시장이 내실있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종업원 대상의 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에게 세금 우대 혜택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단체보험 가입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.

(제일재경일보, 3/9)